



습근평, 아태경제협력기구 제 31 차 지도자 비공식회의에 참석하여 중요 연설 발표



▲ 현지시간으로 11월 16일 오전, 아태경제협력기구 제 31 차 지도자 비공식회의가 페루 리마회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국가주석 습근평이 회의에 참석하여 <시대적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아태 발전을 함께 촉진하자>는 제목으로 중요 연설을 발표했다.

▲ 현지시간으로 11월 16일 오전, 아태경제협력기구 제 31 차 지도자 비공식회의가 페루 리마회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국가주석 습근평이 회의에 참석하여 <시대적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아태 발전을 함께 촉진하자>는 제목으로 중요 연설을 발표했다. 습근평은 기타 아태경제협력기구 성원 경제체 지도자, 대표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리마 11월 16일발 신화통신] 현지시간으로 11월 16일 오전, 아태경제협력기구 제 31 차 지도자 비공식회의가 페루 리마회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국가주석 습근평이 회의에 참석하여 <시대적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아태 발전을 함께 촉진하자>는 제목으로 중요 연설을 발표했다.

습근평이 회의장에 도착하자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열정적인 영접을 받았다.

습근평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수십년간 아태경제협력기구는 아태지역을 이끌고 대발전, 대번영, 대융통을 실현하여 아태지역이 글로벌 경제의 가장 활력있는 분야이자 주요한 성장 엔진으로 되도록 추동했다. 당면 세계 100년의 변화 국면이 가속화되고 아태 협력도 지연되지, 일

방주의와 보호주의가 상승하는 등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력사의 갈림길에서서 아태 각국은 단결협력하고 과감하게 책임지며 아태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고 아태 발전의 새시대를 힘써 개척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건의를 제기했다.

첫째, 개방적이고 융통적인 아태 협력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다자주의와 개방형 경제의 큰 방향을 견지하고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확고히 수호하며 지역경제 일체화와 상호 연결과 소통을 적극 추진하고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수호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아태자유무역구 건설의 새로운 지도성 문건을 채택했는데 이는 아태 개방형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믿는다. 중국은 개방으로 개혁을 촉진하고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과 주동적으로 연결하며 자주개방을 적극 확대하고자 하며 관련 각측과 디지털과 친환경 분야 무역협정을 탐색하고 상담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고표준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둘째, 친환경 혁신의 아태지역 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한다.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기회를 틀어쥐고 인공지능, 량자정보, 생명건강 등 선진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개방, 공평, 공정, 비차별의 혁신 생태를 조성하고 아태지역의 생산력 도약을 추진해야 한다. 생태우선, 절약집약,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견지하고 디지털화 친환경 협동 형태의 전환

발전을 추진하여 아태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에너지와 새로운 우세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은 현지 실정에 맞게 신질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각측과의 친환경 혁신협력을 심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데이터 다국간 류동 협력 창>을 발표하게 되는데 각측과 공동으로 효과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한 데이터 다국간 류동을 촉진하여 아태지역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힘을 이바지하려 한다.

셋째, 보편적 혜택과 포용의 아태지역 발전 리념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발전도상 경제체와 약소계층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며 경제 발전의 '케익'을 공동으로 크게 하고 잘 나누어 더욱 많은 경제체와 더욱 많은 민중들이 발전 성과를 공유하게 해야 한다. 중국은 아태경제협

력기구에서 주민 소득 향상, 중소기업 집진 발전 촉진 등 구상을 추진하여 아태지역 경제의 보편적 혜택과 포용적 발전을 조력할 것이다. 중국은 아태경제협력기구(APEC)의 2026년 개최국을 맡을 것이며 각측과 함께 아태 협력을 심화하여 아태지역 인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기를 기대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개혁개방은 중국과 세계가 공동으로 발전하고 진보하는 역사적 행정이다. 중국공산당 제 20 기 중앙위원회 제 3 차 전원회의는 300여가지 중요한 개혁 조치를 제기하여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 경제의 고품질 발전 추진, 고수준의 대외개방 확대, 인민의 삶의 질 향상, 아름다운 중국 건설 등 각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포치를 했다. 중국의 발전은 아태

지역과 세계 발전에 더 많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은 각국이 계속 중국 발전의 급행렬차를 타고 평화발전, 호혜협력, 공동번영하는 세계 각국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을 환영한다.

페루 대통령 볼루아르테가 주재한 회의는 '에너지 부여, 포용, 성장'을 주제로 했다.

회의에서는 <2024년 아태경제협력기구 지도자 마추픽추 선언>, <아태 자유무역구 의정 새 비전에 관한 성명>과 <정규와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 추진에 관한 리마 로장도> 등 세가지 성과 문건을 발표했다.

15일 저녁, 습근평은 아태경제협력기구 지도자 비공식회의의 환영연회에 참석했다.

왕의가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다.

습근평, 한국 대통령 윤석열 회견

국가주석 습근평은 현지시간으로 15일 오전 '제 31 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도자 비공식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에서 한국 대통령 윤석열과 회견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년전, 우리가 발리에서 만난 이래 국제 및 지역 정세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한 량국은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확고히 하며 호혜상생의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 지리적으로 서로 이웃하고 문화적으로 서로 통하며 경제적으로 서로 융합되어있는 장점을 활용하고 교류를 강화하며 협력을 심화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량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주고 지역의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쌍방은 고위층 교류를 강화하고 리

해와 신뢰를 증진하며 상호 성취에 진력하여 공동히 발전해야 한다.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고 발전 번영하는 것을 환영한다. 량측은 국제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고 글로벌 및 지역 산업사슬·공급사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량국이 친선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더 많이 조직해야 한다. 언론, 학계, 지방정부 특히 젊은 세대간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더 많은 한국 국민이 중국에 오는 것을 환영하며 한국측도 중국 공민의 방문을 위해 더 많은 편의 조치를 내놓기를 바란다. 중국은 한국의 매년 APEC 개최를 축하하고 지지하며 한국과 다자간 조정과 협력을 확대해나갈 용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2년전, 나와 습근평 주석이 발리에서 만난 이래 한·중간 각 분야 교

류와 협력은 질서 있게 발전해왔다. 중국은 세계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엔진이며 세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한국은 중국을 중요한 협력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다. 쌍방이 상호 존중이라는 정신으로 수교의 초심을 견지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공동 도전에 더욱 잘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길 바란다.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한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 참여해 량국 경제·무역 협력을 한중 긴밀하게 하기를 바란다. 중국이 중국 국민에게 보다 면제 혜택을 준 것을 환영하며 중국과의 긴밀한 인문교류를 통해 량국 국민간 친선을 증진해나갈 용의가 있다. 한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해 APEC 등 다자간 기에서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

/ 신화사

제 1 진 '장백영재' 칭호를 수여할 데 관한 중공길림성위와 길림성인민정부의 결정

(2024년 11월 13일)

최근년간 전 성 상하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새시대 인재사업을 잘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강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인재강성 전략을 서둘러 실시하며 당이 인재를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인재사업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하며 인재유치 양성 모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인재 발전 환경을 끊임없이 최적화하며 인재 서비스 보장을 확실하게 잘하고 씌비로 인재를 관심하고 인재를 애호하며 인재를 성취하여 전 성 인재 규모의 질이 뚜렷이 제고되고 인재로 발전을 이끄는 효과가 더욱 뚜렷해졌다.

광범한 인재들의 혁신창업을 더욱 잘 지지 격려하며 길림의 진흥 발전 수요를 만족시키는 고차원 인재 대오를 서둘러 건설하기 위해 성당위

와 성정부는 류익춘 등 12개 인재팀에 '장백영재 결출인재팀' 칭호를 수여하고 손호연 등 164명에게 '장백영재 선두인재' 칭호를 수여하며 조영림 등 153명에게 '장백영재 청년영재' 칭호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양성 지원 주기(周期)에 있는 국가인재계획과 원 '장백산인재공정' 입선자들에 대해서는 '장백영재'에 상응한 칭호를 통일적으로 수여하여 기존의 정책 대우를 계속 향수하도록 한다.

이번에 '장백영재' 칭호를 수여받은 인재(팀)들은 우리 성 여러 업종 인재의 우수한 대표들이다. 그들은 '국지대자(國之大者)', '성지대계(省之大計)'를 가슴에 품고 개척혁신하고 난관돌파하며 새시대가 부여한 사명과 책임을 주동적으로 짊어지고 길림 진흥 발전의 전반 국면에 힘껏 뛰여

들어 일련의 중대한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 성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두드러진 기여를 했다. 칭호를 수여받은 인재(팀)들이 영예를 소중히 여기고 더욱 분발하여 시범 모범 역할을 충실히 발휘함으로써 길림의 진흥 발전을 위해 새로운 공을 세우기를 바란다. 성당위와 성정부는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전 성 광범한 인재들은 '장백영재'를 본보기로 삼고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인 의의를 깊이 깨닫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실현해야 한다. 국가 '5대 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사명을 견결히 짊어지고 전 성의 발전전략 목표를 긴밀히 둘러싸고 새 리념을 견지하고 새 분야를 개척하며 새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

▶ 2면으로